

전문가에게 듣는다

모바일 서비스 분야 표준화 **손성무** 매니저(SKT)

최신 기술력과 상호 호환성에 역점을 두어야

“‘세’계 최초 출시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기보다는 향후 글로벌 마켓으로의 확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을 합류시키는 등 광범위한 호환성 확보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손성무 SK텔레콤 매니저는 국내 모바일 서비스 대표 표준 위피(WIFI)가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표준화 논의가 중단되는 등 그 성과가 미미한 부분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손성무 매니저는 ‘표준화의 기본 원칙은 개방성(Openness)’이라고 강조하며 “구글이 주도하는 OHA(Open Hanset Alliance)에 34개 글로벌 파트너가 참여하는 등 호응이 높은 이유는 OHA의 개방성과 광범위한 상호 호환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손성무 매니저는 지난 1996년부터 LG전자에서 특허 및 표준 전략 수립, 지식재산권(IPR), 가치분석, OMA(Open Mobile Alliance) 표준화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해 온 모바일 표준화 부문 전문가이다. 2007년부터는 SK텔레콤에서 표준 및 특허 전략 수립, 무선서비스 표준화 활동, C&I Biz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 활동 성과 및 노력에 대해 들어보았다.

Q | 우리나라 모바일 서비스의 상용화와 확산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 우리나라 모바일 서비스의 상용화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르게 기획, 개발 및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자 모두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는데다 타 사업자와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 서비스 확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상호 호환성보다는 우선 출시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최초 출시라는 점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글로벌 마켓으로의 확장을 고려할 때, 국제규격과 호환 가능한 제품의 적시 개발 및 자사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활동에 더욱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Q | 국내 모바일 서비스 분야 표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 국내 모바일 서비스 분야 표준화는 TTA를 중심으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관련 표준 포럼들을 지원하고 단체규격을 승인하는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간 포럼인 KWISF는 WIFI 표준규격 제정, OMA 공동 대응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분야 표준은 WIP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 및 이동통신 3사 간 단일화 이슈 등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Q | WIPI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A | 초기 전략 수립 시 국내표준화라는 타이틀에 우리 스스로 오픈인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준화의 기본 원칙은 개방성입니다. WIPI 표준화 진행 시 향후 WIPI의 글로벌 마켓 지향을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업체들을 합류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의 OHA에 많은 업체들이 합류하는 이유는 OHA의 개방성과 향후 광범위한 상호 호환성이라고 봅니다.

Q | 풀 브라우저를 위한 표준화 활동 현황은?

A | 국내에서는 모바일 웹 포럼을 통해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W3C와 OMA에서 모바일 웹을 위한 웹 문서 규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단말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PC상에서 웹 내비게이션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 제정이 진행되지 못했고, 또한 이를 위한 기술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풀 브라우저로 합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Q | 세계 모바일 서비스 분야 표준화 활동에서 국내 기술의 입지는?

A | 그동안 삼성과 LG에서 많은 활동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제표준화 분야에서 국내 기술의 입지는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단독 서비스를 위한 개별 기술들은 뛰어날 수 있으나 글로벌 호환을 위한 표준 기술 분야에서는 늦게 뛰어든 만큼 노키아(Nokia), 에릭슨(Ericsson), 오렌지(Orange) 등 표준 선도기업에 비해 아직은 전반적인 역량이 뒤쳐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기구에서 국내 기업의 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으니 조만간 어깨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Q | 세계 각국 중 모바일 서비스 분야 표준화에서 앞서가는 나라는?

A | 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인 표준화 선진 국가입니다. 유럽은 GSM 표준화 시절부터 정부와 산학 협력하에 상호 호환 가능한 표준 기술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90%를 GSM 방식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표준화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표준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한 사업자가 모든 유럽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유럽 시장의 특수성 및 상호 협의를 강조하는 유럽 문화로부터 기인했습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네트워크가 타 국가들이 단시일 내에 따라잡지 못하는 가장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Q | 모바일 서비스 표준화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 현황은?

A |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로 OMA(Open Mobile Alliance)가 있습니다. 전세계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기반기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는 단체이며 다운로드, 메시징, 커머스, 로케이션, DRM 등 모바일 영역에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모바일 영역과 유선 영역이 합쳐진 컨버전스 서비스(Convergence Service) 관련 표준화 연

구 과제들을 유무선 망을 모두 가진 사업자들이 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OMA는 공식적인 표준화 기구와는 달리 시장 위주의 표준화 기구입니다. 즉 기술의 우수성보다는 시장에 필요한 기술이 더 우선시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요구사항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규격 제정 활동이 활발합니다. 또한 각각의 이해타산에 필요한 내부적인 네트워킹이 있으며, 이는 자사 솔루션의 표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Q | 모바일 분야 표준 기술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모든 서비스를 국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기획 및 개발해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을 선점하게 될 경우 자사 서비스 및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호환성 확보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구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Q | 우리나라가 모바일 서비스 분야 표준화에서 거둔 2007년 주요 실적은?

A | OMA를 예로 들자면 주요 워킹그룹(WG)에 의장단 진출을 통한 우리나라의 표준 위상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OMA 내 14개의 WG 중에 우리나라는 메시지, 브로드캐스트, PoC, 게임 등 주요 WG의 의장단을 맡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강화된 표준 위상 및 역량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고 제출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OMA 활동 업체 중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OMA 국제회의를 작년 8월 서울에 유치한 것도 좋은 성과 중 하나였다고 봅니다.

Q |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A | 주요 모바일 서비스인 DRM, DCD(Direct Content Delivery), BCAST, DM(Device Management), PoC(Push to talk Over Cellular), CPM(Converged IP Message)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Q | 표준화 활동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은?

A | 우리나라의 강점은 빠른 상용화 서비스와 집중력으로 생각됩니다. 상용화 서비스 개발을 통해 나온 기술력을 국제표준에 반영할 경우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호 호환성 확보에 아직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최신 기술력과 더불어 상호 호환성이 가능한 솔루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표준화 무대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Q | 글로벌 기업의 표준화 전략에서 벤치마킹할 기업이 있다면?

A | 단말업체로서는 노키아가 대표적인 표준 선도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키아의 경우 사업 전략, 기술 전략, 선행 및 상용 개발, 표준화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표준화 활동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및 확대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표준화 활동을 통한 타 업체들과의 강한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표준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